'06. 9. 25.

기 자 회 견 문

(직도 산지전용허가 관련)

군 산 시

기 자 회 견 문

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!

□ 저는 오늘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.

□ 그동안 우리시 최대 현안 문제였던, 직도에 자동채점장비(WISS) 설치를 위한 공군의 '산지전용 허가 신청'을 허가 처리한 것입니다.

□ 우리시는 『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』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경제 회생과 군산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.

□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와 원도심의 연계발전을 위해 『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』과 『군장대교 건설』 등 10여개의 국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

□ 이는 전례가 없던 일로, 정부가 우리시와 협력과 신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□ 또한, 직도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군산시 의회에서도 지난 9월 14일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한 바 있으며,

□ 15일에는 제가 직접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정부의 지원규모 확대를 강력히 건의한 결과 총 11개 사업에 3,000여억원의 정부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.

□ 물론, 이러한 지원책이 우리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,

□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치유하고,

□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.

□ 저는 그동안 직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에 대해 다양한 계층,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.

□ 지난 35년간 한미공동으로 사격훈련을 해오고 있다는 현실과 산림청을 통한 사업강행의 가능성, 주민피해 최소화와

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산시의 바람직한 미래 개척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.

□ 그 결과, 우리는 더 이상 낙후된 현실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,

□ 절실한 국방의 문제 해결과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통하여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,

□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

존경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

□ 이제 우리는 더 이상, 이번 직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, 지난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때처럼 내부의 분열과 반목만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.

□ 찬성하신 분들이나 반대하신 분들 모두 군산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.

□ 중앙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감수하고 낙후된 현실에 머물러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.

□ 지금은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. 107년 유구한 항구도시의 명성 재현과 50만 아니 100만의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앞으로도 저와 1,400여 군산시 공무원은 시의회와 협력하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